

배포일시	2019. 6. 18.(화) 10:00 (총 2매)	보도시점	2019. 6. 18.(화) 11:00
담당부서	혁신행정담당관실	담당자	과장 김희수 사무관 조진호
		전화번호	02-2181-0321 02-2181-0325

기상청, 조직 개편으로 예보서비스를 향상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합니다

- 기상청(청장 김종석)은 6월 18일(화) 조직 개편을 공표·시행 한다고 밝혔다.
 - 이번 조직 개편은 정부혁신 일환으로 국민에게 보다 더 나은 예보 서비스와 예보광역화에 따른 지방조직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한다.
- 첫째, 기상 분야별(△호우 △대설 △폭염 △한파 △강풍 등) 위험기상 현상을 집중분석하고, 신속하고 정확한 예보와 특보 수행을 위해 본부의 예보분석 및 예보지원 기능을 보강한다(순증 4명, 자체인력 재배치 8명).
- 둘째, 대구·경북지역의 보다 나은 대국민 기상서비스와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대구기상지청을 ‘대구지방기상청’으로 승격·개편한다.
 - 이번 지방청 승격을 통해 기상현상별 영향예보 확대, 지자체별 방재지원 강화로 지역민 안전을 도모하고, 분야별 맞춤형 기상정보서비스로 기상정보의 가치를 향상할 예정이다.
 - ※ 부서: 관측예보과, 기후서비스과 → 기획운영과, 예보과, 관측과, 기후서비스과
 - ※ 소속기관: 안동기상대(현 부산지방기상청 소속) → 대구지방기상청 소속으로 변경

□ 셋째, 기상측기 성능인증(검정, 형식승인), 기상관측표준화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'계측표준협력과'를 신설한다.

※ 기존 '계측기술과' 폐지, 대체신설

□ 김종석 기상청장은 “이번 조직 개편을 통하여 예보서비스를 향상하고 지역별 기상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상청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”라고 밝혔다.